

## 2024-2 TEP 프로그램 참가 수기

국어국문학과 202221604 박세연

TEP 프로그램은 3 년의 대학 생활 중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국제통상학을 복수 전공하며 막연히 무역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 국제무역현장실무 수업을 알게 되었고, 수강 신청에 실패했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교수님께 직접 메일을 보내 수업 참여를 허락 받았다. 그만큼 이 기회가 간절했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팀 배정 당시, 4 개의 아이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름 아닌 라면 조리기였다. '한강 라면' 열풍으로 인해 나 역시 서울에 직접 가서 사용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이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흥미와 자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팀에 합류한 후 첫 회의에서는 큰 걱정과 불안감이 밀려왔다. 무역 이론조차 익숙하지 않은 내가 경험 많은 팀원들 사이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스스로에게 큰 부담이었다. 결국 첫 회의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못한 채 따라가기 급급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기로 결심했고, 평소 관심있던 '홍보' 분야를 맡게 되었다. 당시 매거진 형식의 SNS 카드 뉴스에 흥미가 있던 참이라 라면 조리기 홍보 게시물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해보았다. 인기있는 밈을 활용하고, 주식회사 캔의 홈페이지를 공부하며 평소 해보고 다양한 디자인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재미와 뿌듯함을 동시에 느꼈다. 또한, 다양한 숏폼 영상을 제작하고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며 눈에 띄는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시연회를 개최하고, 수출 박람회에 참여하며 직접 현장에 나가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이고 도움이 되는지를 몸소 깨달았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팀원들과 함께 G-fair KOREA 에 참여한 일이다. 주식회사 캔의 일원으로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직접 라면 조리기를 소개하고, 시연하는 활동이 제품에 대한 이해와 수출 과정에 대해 암기하지 않고 터득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던 것 같다. 특히 MOQ 와 같은 실무 용어들이 자주 활용되어 학습한 이론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이어를 온라인으로만 발굴할 때에는 체감이 잘 되지 않았는데, 오프라인으로 만나니 이 제품을 꼭 수출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다. 또한, 전 세계 여러 바이어들을 만나고 보니 영어 이외에도 구사할 수 있는 제 2 외국어를 만드는 것이 향후 전문 무역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평소 일본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기회를 통해 언어 공부에 대한 새로운 계획도 수립할 수 있었다.

코트라 이외에도 GBSA, grand sourcing fair, EZCOOK 실소유주들과의 인터뷰 등 정말 많은 활동을 진행했는데, 그 덕분인지 초반에는 저조하던 바이어 회신이 후반부에 빛을 발했다. 특히, 몽골 CU와 이마트에서 샘플 수출을 원한다는 매우 긍정적인 회신을 얻었다. 처음 회신이 오던 날, 우리 팀의 단체 채팅방이 기쁜 환호성으로 가득하던 것이 생각난다. 그 결과 우리 팀은 그토록 바라던 대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전공도, 나이도, 배경 지식과 환경도 다 다른 6 명의 팀원들이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 한 학기 동안 끊임없이 달려온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무역 실무 과정 뿐 아니라 팀원들과의 협업, 비즈니스 매너 등 여러 분야를 성장시킬 수 있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한상곤 교수님과 나를 이끌어준 모든 EZPZ 팀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 번 전하고 싶다.